

국어국문학의 기초 :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

2017

1. 형태론과 통사론의 개념

어절(=최소 자립 형식)

사람의 말소리와 뜻의 결합체를 ‘언어 형식’(linguistic forms)이라 한다. 한국어의 언어 형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ㄱ. 영이가 어제 갔다.
 ㄴ. 어제 갔다.
 ㄷ. 영이가, 어제, 갔다.
- (2) ㄱ. 영이, 어제
 ㄴ. -가, 가-, -았-, -다.

이러한 언어 형식은 ‘자립 형식’(free form)과 ‘의존 형식’(bound form)으로 나누어진다. 자립 형식이란 홀로 말해질 수 있는 언어 형식을 가리키고, 의존 형식은 그렇지 않은 언어 형식을 가리킨다. (1)은 모두 자립 형식이다. (2)에서 ㄱ은 자립 형식이고, ㄴ은 의존 형식이다.

자립 형식들 가운데, 더 작은 자립 형식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어절(=최소 자립 형식(minimum free form)이라 한다. (1)의 ㄷ이 어절들이다.¹⁾

형태적 구성과 통사적 구성

어절은 보통 하나 이상의 자립 형식이나 의존 형식들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어절의 구성을 ‘형태적 구성’(morphological construction)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어절이 결합한 언어 형식의 구성을 ‘통사적 구성’(syntactic construction)이라 한다. (1)의 ㄱ과 ㄴ은 통사적 구성이고, ㄷ은 통사적 구성이다.

1) (2)의 ㄱ은 어절인 경우도 있지만, 어절이 아닌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것들은 “영이 어제 갔다.”라는 문장에 사용될 때는 어절이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영이가, 어제’ 등의 한 성분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어절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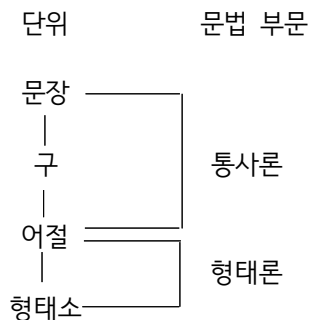
형태적 구성과 통사적 구성의 성분

통사적 구성은 문법 범주의 이름으로 구(phrase)라 한다. 따라서 (1)의 ㄱ과 ㄴ은 구이다. 이 가운데 (1)의 ㄱ을 문장이라 한다. 문장은 “절대적 위치에 놓인 언어 형식”이라 정의되는데, 문법에서는 보통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완전한 문장’(full sentence)을 가리킨다.²⁾ 이상에서 보면, 구는 기본적으로는 언어 형식의 ‘크기’를 기준으로 정의한 것이고, 문장은 언어 형식의 ‘분포’를 기준으로 정의한 것이다.³⁾ 그런데 학교문법에서는 ㄱ을 문장이라 하고, ㄴ을 구라 하여 다른 범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어절은 한 개 이상의 형태소(morpheme)로 구성된다. 형태소는 ‘최소의 언어 형식’을 가리키는데, 더 이상 나누면 의미를 잃어버리거나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지 못한다. 위의 (2)가 형태소들이다.

형태론과 통사론

형태적 구성을 연구하는 분야를 ‘형태론’(morphology)이라 하고, 통사적 구성을 연구하는 분야를 ‘통사론’(syntax)이라 한다. 형태적 구성인 어절은 형태소들로 분석되므로, 형태론의 최대 단위는 어절이고, 최소 단위는 형태소이다. 통사적 구성인 문장은 다시 통사적 구성인 구로 분석되고, 구는 다시 어절들로 분석되므로, 통사론의 최대 단위는 문장이고, 최소 단위는 어절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형태론은 먼저, 형태소의 종류와 기능(의미, 역할)을 확인한다. 곧, 분석된 형태소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의 부류로 나누고, 각 부류의 그리고 각각의 형태소들의 기능이나 의미를 밝힌다. 그런 다음에는 그러한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하는 과정

2) ‘절대적 위치’는 다른 더 큰 성분에 포함되지 않은 위치를 가리킨다.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지 못한 문장을 ‘작은 문장’(소형문, minor sentence)이라 하는데, “불이야!”, “아야.”, “영수.” “예.” 등을 가리킨다.

3) 이러한 논의에 따르자면, 언어 형식의 크기로 보면, 문장도 구의 한 종류라는 것이다.

(원리와 규칙)을 다룬다.

통사론은 먼저, 어절과 구, 문장의 유형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의 부류로 나눈다. 그리고 어절들이 결합하여 구를 형성하고, 구가 결합하여 문장을 형성하는 과정(원리와 규칙)을 다룬다.

2. 형태론과 통사론의 관계

2.1. 용언 관형사형과 통사론

용언의 관형사형의 사용된 통사적 구성의 구조에 대하여 학교 문법의 성분 구조로 분석해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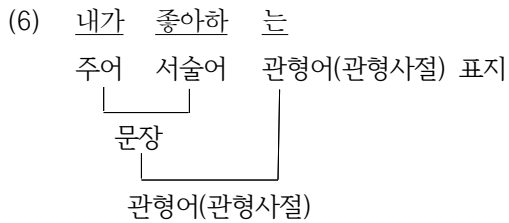
- (3) ㄱ. 용감한 남자
- ㄴ. 내가 좋아하는 남자

(3)의 ㄱ에서 ‘용감한’의 성분은 무엇인가? 관형어이다. 맞는가? (정확한 대답은 아니지만, 일단 맞는 것으로 해 두자.) 그러면 ㄴ의 ‘좋아하는’의 성분은 무엇인가? 관형어이다. 맞는가? 아니다. 이 대답은 명백히 틀렸다. 왜? ‘내가’가 주어인데, 이 주어에 대응하는 용언(서술어)가 없기 때문이다. ‘좋아하는’은 서술어이고, 이 서술어에 ‘내가’라는 주어가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은 관형어(관형사절)이다.

- (4) 내가 좋아하는
- 주어 관형어(×)
- 서술어(○)

- (5) 내가 좋아하는
- 주어 서술어
- └───┘
- 관형어(관형사절)

이상에서 보면, 관형사형 어미는, 적어도 통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좋아하’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와 결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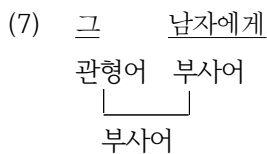


만일 ‘내가 좋아하는’의 통사 구조를 (6)과 같이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자. ‘내가 좋아하는’은 두 개의 어절로 구성되었는데, 그것의 구조는 세 개의 성분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형태론에서는 한 개의 성분인 ‘좋아하는’이 통사론에서는 ‘좋아하-’와 ‘-는’이라는 두 개의 성분으로 분석되었다. 용언 어미 ‘-는’을 중심으로 보면, 이것은 형태론에서는 ‘좋아하-’와 결합하여 한 개의 어절을 형성하지만, 통사론에서는 ‘내가 좋아하-’와 결합하여 관형사절을 형성한다.

[문제 01] (3)ㄱ의 ‘용감한’은, 엄밀히 말한다면, 관형어가 아니라, 서술어이다. (3)ㄱ의 성분 구조를 분석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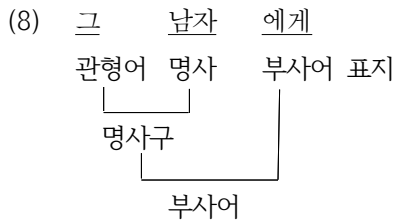
2.2. 체언 어절과 통사론

이제 ‘그 남자에게’의 성분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남자에게’가 부사어인가? 그렇게 분석한 것은 부사격 조사 ‘-에게’가 붙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한 가지 문제점은 관형어 ‘그’는 부사어를 수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다.⁴⁾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그 남자에게 말했다’에서 ‘말했다’는 ‘남자에게’(부사어)가 아니라, ‘그 남자에게’(부사어)와 통합한 것인데, 그렇다면 ‘남자에게’와 ‘그 남자에게’ 둘 다 부사어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남자에게’의 통사론은 다음과 같이 분석될 것이다.

4) 만일 ‘그 남자에게’의 ‘남자에게’를 부사어로 본다면, ‘그 남자가, 그 남자를, 그 남자의’ 등에서 관형어는 각각 주어, 목적어, 관형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기술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2.3. ‘용언+조사’ 어절과 통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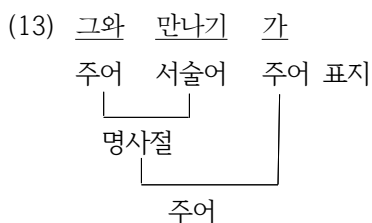
조사는 체언과 결합할 뿐만 아니라, 용언과도 결합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조사가 용언에 결합한 다음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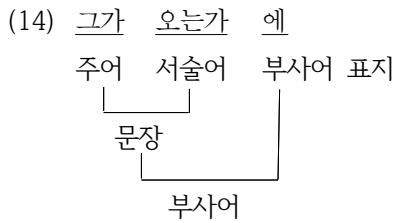
- (9) [그와 만나기가] 너무 싫다.
 (10) 일의 성공은 [그가 오는가에] 달렸다.

(9)의 ‘-가’는 주격 조사이고, (10)의 ‘-에’는 위치격(부사격) 조사이다. 그렇다면 ‘만나기가’와 ‘오는가에’의 성분은 무엇인가? 각각 주어와 부사어인가? 그렇지 않다. 직관적으로 볼 때, ‘만나기(가)’와 ‘오는가(에)’는 서술어이며, ‘그와 만나기가’는 주어이고, ‘그가 오는가에’는 부사어이다.

- (11) 그와 만나기가
 주어 주어(x)
 서술어(○)
- (12) 그가 오는가에
 주어 부사어(x)
 서술어(○)

이상에서 보면, 격조사 ‘-가’와 ‘-에’는, 적어도 통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각각 ‘그와 만나기’와 ‘그가 오는가와 결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4. 모듈 사이의 불일치의 문제

그런데 만일 이상과 같이 용언의 어미와 조사를 통사론의 한 성분으로 분석하게 되면, 형태론의 최대 단위인 어절과 통사론의 최소 단위(=통사소)가 일 대 일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 곧 ‘좋아하는’과 ‘남자에게’는 형태론에서는 한 어절인데, 통사론에서는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된다. ‘만나기가’는 형태론에서는 한 어절인데 통사론에서는 최소한 세 개의 성분으로 분리된다.

이러한 현상을 문법 부문들 사이의 ‘불일치’(mismatch)라 하는데, 이러한 불일치는 왜 생기며,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문법 이론의 주요한 과제가 된다.⁵⁾ 이러한 문제는 엄밀하게는 문법 부문들 사이의 중개 장치(interface)⁶⁾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물론 통사론의 최소 단위를 어절로 분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종류의 불일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용언 어미 ‘-는’의 통사적 기능을 통사론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⁷⁾

3. 어절의 구조와 성분

3.1. 형태소: 어근과 접사

어근과 접사

어근(root)은 모든 어절의 핵(nuclei or core)을 구성하는 형태소이다. 어근이 어절의 핵이 된다는 것은 어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형태소라는 뜻이다. 어근은 자립 형식일 수도 있고, 의존 형식일 수도 있다. 또 하나의 어절에 하나의 어근만 있을 수도 있고,

5)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는 모든 문법 부문들 사이에서, 예컨대 형태론과 통사론, 통사론과 의미론, 통사론과 화용론, 통사론과 음운론, 형태론과 의미론 등의 사이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을 문법의 역설(paradox)이라 하기도 한다.

6) 어떤 이는 interface를 접면(接面)이라 번역했는데, 직역이며, 한글로만 쓸 때는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다 적절한 번역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7) 중심어 구 구조 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에서는 대개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문장의 궁극적인 중심어(핵)은 용언이며 용언 어미는 용언의 일부이기 때문에, 용언 어미의 정보는 당연히 문장(이나 절)에 전달된다.

둘 이상의 어근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접사(affix)는 어근 형태소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소들을 가리킨다.

(15) ㄱ. 사람, 나무, 여자, 불, 위험; 매우, 잘; 이, 그; 아야
ㄴ. 가-, 보-

(16) ㄱ. 구름, 바다, 주-, 예쁘-
ㄴ. 멧-돼지, 산-토끼, 검-푸르-, 모-심-

(17) ㄱ. -이/가, -을/를, -에, -에게, -로, -와; -은/는, -도, -만, -부터, -까지, -조차, -마저, -이라도, -이나마
ㄴ. -사-, -었-, -겠-, -더-, -다, -느냐, -고, -게
ㄷ. 군-(소리), 날-(강도), 새-(까망다)
ㄹ. (달)-거리, (공부)-꾼, (순이)-네, (날)-씨

어근은 최소한 (18)의 조건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접사는 (18)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형태소라 할 수 있다.

(18) 어근의 조건

- ㄱ. 어근은 하나의 어절로 쓰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형태소이다.
- ㄴ. 하나의 어절에는 적어도 하나의 어근이 있어야 한다.

접사는 어근의 앞에 놓이는 접두사(prefix)와 어근의 뒤에 놓이는 접미사(suffix), 어근을 끼고 그 사이에 놓이는 접요사(infix)로 나누어진다. 한국어에는 접요사가 없다.

파생 접사와 굴절 접사

접사는 그것이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derivational) 접사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굴절’(inflectional) 접사로 나누어진다.⁸⁾ 한국에서 파생 접사는 접두사이거나 접미사로 실현되며, 굴절 접사는 항상 접미사로 실현된다.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는 분포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굴절 접사는 그 접사가 결합하는 어근과 동일한 부류의 거의 모든 어근과 자유로이 결합한다. 그런데 파생 접사는 일부의 어근과만 결합한다.

예컨대, 한국어의 굴절 접사는 체언에 붙는 것과 용언에 붙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8) 학교 문법에서는 ‘파생 접사’는 ‘접사’라는 용어로 가리키고, ‘굴절 접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체언에 붙는 굴절 접사는 거의 모든 체언과 결합하고, 용언에 붙는 굴절 접사는 거의 모든 용언과 결합한다.

그런데 파생 접사는 동일한 부류의 단어라 할지라도, 한정된 단어와만 결합한다. 예컨대 ‘군소리’의 ‘군-’은 명사와 결합하는 파생 접두사인데, ‘*군사람, *군여자, *군돌, *군바람’ 등과 같이 그것이 결합되지 않는 명사들이 아주 많다. 또 ‘깨뜨리다’의 ‘-어뜨리-’는 동사와 결합하는 파생 접미사인데, ‘*잡아뜨리다, *보아뜨리다, *주어뜨리다, *해뜨리다’ 등과 같이 그것이 결합하지 않는 동사들이 아주 많다.

3.2. 어간과 어미(토)

학교 문법에서는 용언의 굴절에서 굴절 접사로 구성된 부분과 그것을 제외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뒤의 부분을 어간(stem)이라 하고, 앞의 부분을 어미(ending)라 한다. 그리하여 용언은 기본적으로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체언의 굴절도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도 있는데, 만일 그렇게 본다면, 조사는 어미가 되고, 조사가 결합하는 체언은 체언의 어간이 될 것이다.

(19) 용언 어절의 구조

어간	어미
가-	-는다

(20) 체언 어절의 구조

어간	어미
바다	-에

좀 더 일반적으로는, 굴절 접사가 결합하지 않는 감탄사와 관형사, 부사도 어간과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경우, 영(zero)의 어미를 설정할 수도 있다.

(21) 감탄사, 관형사, 부사의 어절의 구조

어간	어미
아야	(0)
그	(0)
다른	(0)

이상의 논의들에서 어간은 각각 다음과 같이 달리 정의될 수 있다.

(22) 어간의 정의

- ㄱ. 용언에서 굴절 접사와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할 수 있는 언어 형식(용언에 한정된 정의, 학교문법)
- ㄴ. 굴절 접사와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할 수 있는 언어 형식(체언을 포함한 정의)
- ㄷ. 단독으로 또는 굴절 접사와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할 수 있는 언어 형식(모든 종류의 어절을 포함한 정의)

그러면 어절은 다음과 같은 두 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23) 어절의 유형

- ㄱ. 어간만으로 구성된 것: 관형사, 부사, 감탄사
- ㄴ. 어간과 굴절 접사(토)로 구성된 것: 체언, 용언

4. 굴절법과 조어법

4.1. 굴절법

굴절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4) 굴절법의 정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하는 방법

어절은 굴절 접사가 결합된 것과 굴절 접사가 결합되지 않은 것의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체언과 용언은 굴절 접사와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하고, 감탄사와 관형사, 부사는 굴절 접사 없이 단독으로 어절을 형성한다.

(25) ㄱ. 사람이, 산을, 산에; 간다, 가는, 가고, 가게

ㄴ. 아야, 아이쿠; 이, 그, 저, 다른; 매우, 잘

여기서 체언과 용언에 굴절 접사가 결합하는 것을 굴절법이라 한다. 체언에 굴절 접사가 결합하는 것을 곡용법(준굴절법, declension)이라 하고, 용언에 굴절 접사가 결합하

는 것을 활용법(순수굴절법, inflection)이라 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 어절의 구조 (굴절법)

	체언/용언	조사/어미
준 굴절법	바다	에
순수 굴절법	가-	-ㄴ다

4.2. 조어법

단순어와 복합어, 그리고 조어법

어절의 어간은 기본적으로 한 개 이상의 어근과 0개 이상의 파생 접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한 개의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를 단순어(simple word)라 하고, 두 개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거나, 한 개 이상의 어근과 한 개 이상의 파생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complex word)라 한다.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derivational word)와 합성어(compound word)로 나누어진다.

(27) 파생어와 합성어의 정의 (1)

- ㄱ. 파생어: 어근과 파생접사로 구성된 단어(어간)
- ㄴ. 합성어: 어근과 어근으로 구성된 단어(어간)

조어법(word formation)은 새로운 단어(어절의 어간)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복합어를 형성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28) 조어법의 정의

어떤 어간에 어떤 형태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는 방법

조어법은 파생어를 형성하는 파생법과 합성어를 형성하는 합성법으로 나누어진다.

파생어와 합성어를 가르는 기준

어절의 어간이 두 개의 어근으로 구성된 것들과 한 개의 어근과 한 개의 파생 접사로 구성된 것들인 경우에는, 그것들이 파생어와 합성어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 (29) ㄱ. 봄비, 산돼지 오가다, 검붉다
 ㄴ. 군소리, 잡히(다)

그런데 어절의 어간이 두 개 이상의 어근과 한 개 이상의 파생 접사로 구성된 단어들은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30) ㄱ. 붙잡히다, 드날리다, 훔날리다, ...
 ㄴ. 보물찾기, 돈벌이, ...
 ㄷ. 곧추세우다, 곧이듣다, 되새김질하다, ...

이러한 어떤 단어(어절의 어간)이 합성어인가 파생어인가는 그것의 직접 성분의 하나가 파생 접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된다. 곧 파생어와 합성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31) 파생어와 합성어의 정의 (2)
 ㄱ. 파생어: 어간의 직접 성분의 어느 하나가 파생 접사인 단어.
 ㄴ. 합성어: 어간의 직접 성분의 어느 하나도 파생 접사가 아닌 단어.

곧, 파생 접사를 포함하면 파생어이고, 그렇지 않으면 합성어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어에서, 직접 성분임을 확인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32) 직접 성분임을 확인하는 기준
 직접 성분으로 분석할 때, 어느 하나가 어간이나 어절로 쓰일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성분이다.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성분이 될 것이다.)

이제 (32)의 기준에 따라, (30)ㄱ의 자료들은 (33)ㄱ으로 분석되어, ‘붙잡히다’는 파생어, ‘드날리다’와 ‘훔날리다’는 합성어로 판정된다. (30)의 ㄴ과 ㄷ은 (33)의 ㄴ과 ㄷ으로 분석되어, 합성어로 판정된다.

- (33) ㄱ. [[붙잡-] -히-], [[드-] [날리-]], [[훔-] [날리-]]
 ㄴ. [[보물] [찾기]], [[돈] [벌이]]
 ㄷ. [[곧추] [세우-]], [[곧이] [듣-]], [[되새김질] [하-]]

여기서 위 예들의 성분 구조에서, 파생과 합성의 모든 과정을 고려해 보자. 그러면,

‘붙잡히다’는 합성의 과정을 거쳐 파생어가 되었고, ‘드날리다, 흘날리다’와 ‘보물찾기’와 ‘곧추세우다, 곧이듣다’는 파생의 과정을 거쳐 합성어가 되었다.

4.3. 굴절법, 조어법과 통사론

굴절법으로 본 어절의 단위인 어간과 어미는 통사론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어간은 여러 종류의 어절(성분)이니 구와 결합하여 통사적 구성을 형성하며, 어미는 어절의 종류를 결정한다. 그런데 조어법으로 본 어절(의 어간)의 성분인 어근과 파생접사들은 기본적으로 어간의 성분으로만 기능할 뿐, 통사론의 다른 성분과 어떤 문법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예컨대 복합어 ‘날씨’와 ‘봄비’를 포함한 통사적 구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없다.

- (34) ㄱ. *[[우리가 헤어진] 날] 씨
 ㄴ. *[[조용히 내리느] 봄] 비

그런데 ‘-답-’, ‘-이’와 같은 파생 접사들은 굴절 접사(어미)와 유사한 통사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 (35) 공부하는 학생답(다)
 관형어 서술어(x)

- (36) 공부하는 학생 답
 서술어 체언 용언
 ┌───┬───┐
 │ │ │
 └───┴───┘
 관형사절
 ┌───┬───┐
 │ │ │
 └───┴───┘
 서술어

[문제 02] “우산도 없이, 동물과 달리”의 성분 구조를 분석해 보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접사를 통사적 지위를 갖는 굴절 접사와 일부의 파생 접사를 묶어 ‘통사적 접사’라 하고, 통사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파생 접사를 ‘어휘적 접사’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